



KS 데뷔 타석부터 8연속 출루 신기록

괴물, 그 이상의 괴물 KT 강백호

‘괴물타자’ 강백호가 KT의 KS 우승을 향해 앞장섰다. 14일 1차전, 15일 2차전에서 두산 투수들을 상대로 8타석 5타수 5안타 3볼넷을 기록하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KS 데뷔타석부터 8연속 출루는 강백호가 역대 최초다. 새로운 ‘가을 타짜’로 등장한 강백호가 14일 고척돔 1차전 4회말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고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8타석 5타수 5안타 3볼넷...100% 출루
1983년 송영은 6연속 기록 2타석 늘려
3차전서 PS 11연속 최다 출루에 도전
수비도 발군의 실력...“나보다 팀 우승”



한국시리즈(KS·7전4승제) 40년 역사상 이렇게 뜨거운 데뷔는 없었다. 프로 4년차, 처음 밟은 KS 무대라기에는 너무도 여유로운 모습으로 긴장을 즐기고 있다. 커리어하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말처럼, 강백호(22·KT 위즈)는 올 가을을 자신의 계절로 만드는 중이다.

KT는 14, 15일 열린 두산 베어스와 KS 1·2차전을 모두 잡고 창단 첫 통합우승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월리엄 쿠에바스~소형준으로 이어진 원투펀치가 나란히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 피칭으로 선발승을 챙겼고, 아수진은 그물망 수비로 틈을 주지 않는다. 타선도 골고루 타진 가운데, 3번

타자 겸 1투수로 나서고 있는 강백호가 가장 뜨거웠다. 강백호는 KS 2경기에서 8타석 5타수 5안타 3볼넷 1타점 2득점으로 100% 출루에 성공했다. 안타 5개가 모두 단타였지만, KT를 앞두고 특유의 폴아웃 대신 상황에 맞는 타격으로 변화를 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KBO 공식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KS 데뷔타석부터 8연속 출루는 강백호가 역대 최초다. 종전 기록은 1983년 MBC 청룡 송영은의 6연속이다. 모두가 긴장하는 가을의 폭격기 무대에서 데뷔 타석부터 펄펄 난다는 자체가 강백호의 멘탈을 상징한다. 여기에 지난해 두산과 플레이오프 4차전 마지막 타석을 포함하면 9연속 출루다. 역대 포스트시즌(PS) 최다기록은 2011년 SK 와이번스 박정권의 11연속 출루. 그 다음은 2017년 두산 오재일(현 삼성 라이온즈)의 10연속이다. 모두 가을의 타짜로 이름을 알린 선수들. 강백호는 데뷔 2번째 PS 만에 이들 바로 다음에 이름을 올렸다. 17일 KS 3차전 초반 강백호의 타석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순히 타석에서 생산력만 빼어난 게 아니다. ‘1루수 강백호’의 가치도 만점이다. KT의 2승 비결은 수비

다. 이강철 감독은 경기 후 승장 인터뷰 첫머리에서 매번 수비의 힘을 언급했다. 2차전에서선 1회초 2루수 박경수의 귀신같은 다이빙캐치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지만, 강백호가 2회초 병살을 엮어낸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감독은 “막내(소형준)가 던지는데 야수들이 집중력 있게 해줬다. (박)경수, (황)재균이, (강)백호도 수비에서 큰 도움을 줬다”고 칭찬했다. “올 시즌이 내 커리어하이가 아니다. 내 커리어하이는 내가 만들 수 있지만, 팀 1위는 혼자 만들 수 없다. 우리 팀의 우승 도전을 함께 한다는 게 더 뜻 깊다.” KS 2차전을 앞둔 강백호의 출사표였다. 단기 표본만 놓고 봤을 때, 2021년 가을의 강백호는 가장 뜨겁다.
▶ 한국시리즈 관련기사 2·3·4면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KS 3차전 예고

17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고척

KT
데스파이네

VS

두산
미란다



중계 : SBS



19일 공개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인기를 이어갈 새 ‘K(케이)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초대박 작품 나왔다” 두근두근 ‘제2 오징어게임’ ‘지옥’이 온다

연상호 감독 연출 넷플릭스 시리즈 19일 오픈
유아인·박정민 주연 공포물...극찬 평가 쏟아져

‘오징어게임’은 몰신주의가 빚어낸 불평등한 세상을 그린 ‘지옥도’로 세계적 시선을 모았다. 또 한 편의 ‘지옥도’가 찾아온다. 표현 그대로 ‘지옥’이다. 배우 유아인·박정민·김현주 등이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과 손잡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오징어게임’의 성과를 노리며 19일 전 세계를 겨냥한다. ‘지옥’은 ‘지옥의 사자’라는 캐릭터를 내세운 초자연적 현상을 소재 삼아 공포의 혼란에 내몰린 세상을 그린다. 그 아수라장이 신의 의도라는 종교단체 의장(유아인)과, 그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변호사(김현주)와 방송사 PD(박정민), 형사(양익준) 등이 광기 어린 현실에 맞서는 이야기이다.

연출자 연상호 감독은 16일 “(실제)있을 법한, 각자 신념이 다른 인간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 사회”라고 표현했다. 현실을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2013년 종교가 몰고 온 현실의 공포를 그린 연 감독의 애니메이션 ‘사이비’에서 목소리 연기한 양익준도 “현실에서 지옥 같은 감정으로 펼쳐지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가리켰다.

‘비현실적’ 상황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려는 ‘지옥’의 시선은 또 다른 면에서 기대감을 키운다. ‘부산행’으로 2016년 1000만 관객을 이끈 연 감독과, 지난해 영화 ‘#살아있다’의 유아인 등이 쌓은 해외 명성 덕분에. 연 감독은 2016년 ‘부산행’을 칸 국제영화제에서 소개해 호평을 받았고, 작품은 한국영화의 대표작으로 해외에서 통한다. 유아인은 좀비물 ‘#살아있다’를 넷플릭스에서도 선보여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영화’ 2위에까지 올려놓은 주역이다.

넷플릭스가 좀비물, 공포, 스릴러, 판타지 등 장르적 색채가 뚜렷한 작품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이 나온다. ‘지옥’은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암울한 미래사회, ‘디스토피아’를 향하며 장르적 재미를 내세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새롭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소개한 가운데 ‘지옥’도 초청됐다. 유아인은 “앞에 있던 관객들이 미동도 없이 집중하는 모습에 나도 같이 빠져드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돌아봤다.

박정민, 김현주, 양익준, 원진아 등 주역들도 ‘오징어게임’ 이후 한국 콘텐츠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박정민은 이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느낄 법한 공포와 혼란을 그렸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더합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더합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